

한국공학 70주년을 맞아 우리협회 회원중 4년제 대학 전기공학과 졸업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한양대학교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 한국공학 70주년 즈음하여...

전기공학 전공은 전력시스템 및 변환, 대전력 및 플라즈마 응용, 시스템 제어를 다루는 전공으로써 미래의 에너지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 전기에너지의 발생, 변환, 전달 및 제어에 관한 학문을 다루게 된다. 한양대학교에서는 미래의 전기와 제어분야의 산업 및 연구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기에너지 및 제어분야의 탄탄한 기초이론과 응용기술을 겸비한 전문기술인의 육성, 전기에너지 및 제어분야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창조적 기술인의 양성, 세계화, 개방화의 무한 경쟁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세계무대에서 교류, 활약할 수 있는 세계일류 기술인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취재 | 제도연구실 손영선

**Q** 올해는 한국공학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최초의 사립 공과대학인 한양대학교 설립 70주년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A** 우리 한양대학교는 선구자적인 해안을 가진 백남 김연준 박사께서 일제 강점기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은 기술의 발전뿐이라는 일념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립 공과대학입니다.

1939년 '사랑의 실천'과 기술보국의 이념으로 실용적인 기술교육이 시발점이 된 동아공과대학원은 토목, 건축, 광산학과로 첫발을 내딛은 이후, 1959년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인가되어 한양대학교로 거듭나게 되고, 9개 학과로 공과대학이 구성된다.

한양대학교는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공과대학의 대명사로 6만여 명의 졸업생 배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군을 양성하고, 국내 기간산업의 현장에서부터 첨단 기술 부문까지 전 분야에 고르게 진출하여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졸업생들은 60, 70년대 조국 근대화 및 80, 90년대의 조국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현재는 국제적으로 경쟁을 지닌, 21세기 지식기반의 기술경쟁력이 주도하는 사회를 이끌어 갈 우수한 공학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Q** 최근 한양대학교에서 개교 70주년을 맞아 "미래를 밝혀줄 공학 7개 분야를 선정

하고 전력적으로 직종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7선 기술(7대 미래국가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A** 개교 7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현재 한양대학교가 세계적 우위에 있고 앞으로 세계적인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7개의 기술 분야를 엄선하고,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 및 국내 저명인사를 초치하여 석학 좌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7선 기술은 Sustainable Technology, Green Energy, Semiconductor, Automobile, Robot, Extreme Engineering, Display로써, 개교 70주년의 슬로건인 "The Engine of Korea"에 매우 적합하며, 연초 정부가 확정 발표한 17개 신성장 동력에 근간으로 하였다. 따라서 금번 한양대학교의 7선 기술 석학 좌담회는 정부의 새로운 경제 성장 비전과 궤를 같이함.

**Q** 우리나라 공과대학 교육이 선진국에서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선진국의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그 동안 정부에서 기초과학 진흥시책에 따라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어 정부 R&D예산의 25.6% 이르고, SCI논문외의 양적 성과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2007년 25,494건 세계12위) 지난 20년간 국내 연구역량은 양적 질적 모두 크게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인면은 세계 12위 질적인 면(평균피인용수) 순위는 세계 30위로 만족치 않은 상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의 질적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



도록 교수, 연구자 중심의 지원전략이 필요하고 공학교육 실험 및 최신기자재 도입과 전국 이공계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강화와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 역량이 높은 해외 주재 국내학자가 국내 대학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Q 최근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이 대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장님께서서는 대학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업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우선 이공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 및 수요자 니즈를 강화하고 산학협력의 성공모델을 발굴, 확산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주체의 동종업 관련 학연과의 산학교류회의 정기적인 개최 및 확산 등) 또한 대학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산학연계 조직 강화하여 산학지원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Q 학계에 계시면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공계(전기공학) 실업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한국의 이공계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Control Tower 부재로 정책리더십 약화, IMF사태 이후 이공계기 파하는 사회분위기 확산, 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현재 사면초가 상태이다. 최근 들어 과학기술과 산업육성에 대한 국가 사회의 의지가 약화되었고 이공계 우대 정책도 빠르게 퇴조 되어 가고 있어 과거 60~70년대 정부가 앞장서 이공계 인력을 파격적으로 우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쉽게, 편하게, 즐겁게의 사회풍조가 만연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현 중고교의 교육현실을 이해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는 Global Engineer를 키워 낼 수 있는 공학교육이 절실하다. 그리고 산학장학생선발, 지속적인 산학협동연구, 감가상각이후의 기업 보유기자재의 대학에 기부등 기업이 대학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전자공학과외의 경우 외국의 경우를 보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대학은 보편타당성 있는 학과 명칭보다는 유행에 따른 학과 명칭이 많아 기초과목에 대한 부실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특히, 전기공학은 모든 산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분야임으로 기업 측에서의 대학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선호가 향상된다고 기대된다.

**Q 이공계 위기설과 관련해 한양대학교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마스터플랜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첫번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혁신 및 학문간 통섭” 교육과 연구의 특화로 저학년 대상 강의 전담교수진 확보 및 대학원중심의 연구교수제 활성화 하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미래학문으로의 Regrouping 과 연계학과 간 복수학과 겸직 교수제 제도 기반 조성한다. 또한 효율적인 단과대학간 구조조정으로 자연과학대학의 한양공학원 참여 유도하여 과학과 기술의 일체화 시키고 자유전공 공과대학 설립을 통한 학문 영역 간 융합토록 한다.

둘째로 Green Campus 공간 효율화를 시켜 교육, 연구, 산업 등 복합기능을 갖는 HY Culture Complex를 조성하고, 교육, 연구 인프라 구축 및 New Hanyangism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한다.

셋째로 인사시스템 혁신과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NO work, NO reward 개념을 반영하여 교수업적 평가 제도를 전면개편하고, 교수 연봉제 시행으로 능력에 맞는 대우, 학부중심 분권행정 시스템을 통해 자율한양 구축한다.

대학교 전기관련학과 졸업생 협회 등록현황

